

□□ □□□ □□ □□ **120**□□ □□ □□□ <□□
□□□, □ □□□ □□>



이
것들을
위하야

정환 생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어린이'의 출현

어린이라는 말은 유정환에 의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여 순진하고 친진난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의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거나 성숙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자식은 어른의 명령에 따르거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가문의 대를 잇거나 노동력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어린이는 부모나 집안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어린이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서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라는 새로운 생각이 싹텄습니다. 어린이는 고귀하고 존엄한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개성과 권리를 갖고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자랄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어린이권이 1920년대 방정환과 어린이운동기에 의해 널리 퍼졌습니다.

* 거꾸로 된 글자가 다섯 개 있습니다. 찾아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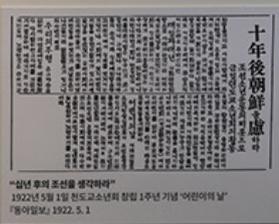
대한뉴스로 본 어린이날

1970년대
과자종합선물세트

1980년대
야구클럽,
스펙스 신발



- | | | |
|--------------|-------------|--------------|
| 1. 어린이날 | 1954. 5. 5 | 대한뉴스 제 40호 |
| 2. 제국의 제1차대전 | 1961. 5. 12 | 대한뉴스 제 313호 |
| 3. 5월의 개항기 | 1975. 5. 30 | 대한뉴스 제 1030호 |
| 4. 애고 제1차대전 | 2003. 5. 7 | 대한뉴스 제 1418호 |
| 5. 청소년의 날 | 1994. 5. 11 | 대한뉴스 제 2009호 |



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 때문이지요.
찾았을까요?
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

□□□□□□ □□□□□□ □□□□ <□□□□□□, □ □□□ □□>□ □□□ □□□ □□ □□□ □□ □ □
□□ □□□.

□ · □□ /
□□□□□ □□□